

|                                                                                                              |                                                                                                                                          |                                                                                                                          |
|--------------------------------------------------------------------------------------------------------------|------------------------------------------------------------------------------------------------------------------------------------------|--------------------------------------------------------------------------------------------------------------------------|
| <b>리버데일 한의원</b><br>한의사 : 임 베로니카<br>3263 Johnson Ave.<br>Bronx, NY 10463<br>(718)796-0267/ 3636               | <b>맥 한의원</b><br>한의사 : 김 글라라<br>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br>224E 204St Bronx<br>(718) 563-1209                                                        | <b>이준승 치과</b><br>Medicaid Accepted<br>503 S Broadway #250<br>Yonkers NY 10705<br>(914) 376-4033                          |
| <b>뉴저지동해수산</b><br>EastSeafood Restarant<br>445 Grand Ave<br>PalisadsPark, NJ07650<br>Tel 201-461-4447        | <b>뉴욕라이프보험</b><br>김 여경(헤레나)<br>(203) 629-0266(O)<br>각종 보험, 투자                                                                            | <b>리사 휴대폰</b><br>국내무제한, 한국5시간<br>월40\$ (세금포함)<br>(718)205-1200 Kim                                                       |
| <b>중앙 장의사</b><br><b>하 봉 호</b><br>(718) 353-2424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br>Century 21 Royal<br>부동산 Sales, Rental<br>Mija (세실리아) Son<br>(914)310-6990(C)                                               | <b>뉴욕정비(브롱스)</b><br>2801Webster<br>(718) 295-3252                                                                        |
| 통증 증제의학<br><b>이한식 제통전문병원</b><br>신경 차단술<br>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br>(718) 224-1600<br>43-2422Pl.Bayside, NY 11361 | <b>아리랑 여행사</b><br>ARIRANG TRAVEL SERVICE<br>INC.표 : 김 율 환(Francisco)<br>영 희(Julie)<br>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br>1-212-563-3350<br>1-800-223-6225 | <b>김태복 통증 한의원</b><br>통증 전문 39 W 32 St<br>Suite300 맨하탄(212)<br>947-8382(B)뉴저지(201)<br>592-5514(H)                         |
| Edward D Jamis, Jr<br><b>장 의 사</b><br>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br>베이사이드 노던 209가<br>(718) 224-2390<br>(888) 224-6088     | <b>정일연(스테파노)지과</b><br>코림비아 지구파과로 옮김<br>엠파이어스테이트(시립병원 앞)<br>(718)426-4343, (주자음비)<br>베이사이드718-352-3434                                    | <b>HOPE AGENCY INC.</b><br>희망 보험사<br>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br>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br>(718) 961-5000 김 모세                         |
| <b>FirstAmerican Landing</b><br>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br>대출까지주택상가 사업<br>체) 정영오 루가<br>201-461-9999<br>917-232-8890      | <b>김진상 3S 교정치과</b><br>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br>◎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br>◎ 북부 NJ : (201) 840-1123<br>◎ 중부 NJ : (732) 548-4848<br>김 진상 (빈센트)  | <b>김철 공인 회계사</b><br>Young & Julian, LLC<br>150-05 노던(150가)<br>2F1 (플러싱)<br>(718)888-1217                                 |
| <b>컴퓨터 출장수리</b><br>감시카메라/인터넷<br>전화설치/수리<br>이종석(사도요한)<br>(201) 336-2522                                       | <b>핑크 미용실</b><br>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br>3135 Grand Concourse<br>(between 204 & 205 St.)<br>Tel. (718) 563-6997                              | <b>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b><br>월-금 8:00 AM-4:30 PM<br>일 9:00 AM-2:00 PM<br>(718)353-7676<br>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
| <b>센츄럴 헤어살롱</b><br>(구 브롱스소망이발관)<br>남, 여 이발 및 미용<br>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br>(914) 725-0747                        | <b>김영관 회계사무소</b><br>● 개인/법인세무보고<br>면 회사설립 사업허<br>공증, 번역 종업원상해<br>(718)961-4024(2)                                                        | <b>광고모집</b>                                                                                                              |

제1674호

2011.8. 7

# 북 부 뉴 욕

##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오 14, 22 - 33)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 연중 제19주일

### ㄹ 입당송

(시편 74(73), 20.19.22.23)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 잊지 마소서.

<대영광송>

### ㄹ 제1독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9-11-13)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왔다.

11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핼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13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85(84), 9-11과 10.11-12.13-14(● 8))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1.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2.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ㄹ 제2독서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9,1-5)

형제 여러분,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2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5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ㄹ 복음 환호송

(시편 130(129), 5)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ㄹ 복 음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3)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 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 그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α 영성제송

(시편 147,12.14)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 전례

|         | 미사해설 | 제1독서  | 제2독서 | 신자기도 |
|---------|------|-------|------|------|
| 8/ 7 8시 | 이 상자 | 김 부균  | 방 경숙 | 박 미순 |
| 11시     | 이 윤형 | 양 명상  | 양 정남 | 이 연경 |
| 8/14 8시 | 홍 명숙 | 함, 봉국 | 함 경옥 | 김 미수 |
| 11시     | 최 일환 | 이 준섭  | 이 회양 | 최 금연 |

복 사 : 윤 정훈 & 박 지성 김 찬 & 김 현민  
 봉헌자 : 장윤화&추성태 가족 다음주 : 김만석&조현구 가족  
 헌금봉사 : 하늘의 문 Pr 다음주 : 사랑하을 어머니 Pr  
 운전봉사 : 이 준섭 다음주 : 김 민환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김카타리나(감사미사) : 사랑하을 어머니 Pr 봉헌  
 최카타리나[연월](생미사) : 오제인[은자], 양리카드로[경식] 가족봉헌  
 최토마스 최아가다(생미사) : 박프란체스카 가족봉헌  
 윤제식(생미사) : 추바오로[성태] 봉헌  
 송세실리아[화준](생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정루시아[태영](생미사) : 사랑하을 어머니 Pr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부모님 기일(연미사) : 강마가렛[순연] 가족봉헌  
 한성희(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강바울라 기일(연미사) : 황인서 봉헌  
 이근배(연미사) : 양리카드로[경석] 봉헌  
 부모님(연미사) : 양리카드로[경식] 봉헌  
 김마리아[명수](연미사) : 손세실리아, 손아브라함[달구] 봉헌  
 이어거스틴[일명](연미사) : 박바오로[중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임유리안나(연미사) : 김엠마누엘[일규], 이클레멘스[준섭]  
 이줄리아, 문아네스[옥희] 봉헌

## 성가

입당 :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성가 68)

봉헌 : 제물 드리니 (성가 342)

성제 : 사랑이 없으면 (성가 415)

파견 : 주 그리스도 우리 왕 (성가 75)

## 교회 소식



###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예비자 교리반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기회에 인도하도록 합시다.

### (2) 단체장 간담회

오늘(주일) 11시미사후 회의실에서 각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단체장들은 1년 행사 계획표를 지참하시고 간담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3) 성모승천 대축일

4대 의무축일의 하나인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8월15일(월) 저녁

8시30분 에 있습니다.

#### (4) 2차 헌금(Home Missions)

연중 계획에 의거 오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5) M.E. (행복한 주말부부)

제66차 부부주말 피정이 9월3일(토)-5일(월)에 Wyndham Garden Hotel, Newark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대표부부장 윤화(알폰소) 914-523-9887 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 하신 분은(교무금 1달치) 회계연도 8월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7) 성가대 솔로리스트(윤마리아) 음악회

솔로리스트 윤정자 마리아의 음악회가 다음주14일(주일) 11시 미사 후 (점심제공) 12시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8) 본당 골프대회

본당 골프대회(청소년 기금마련)가 8월21일(주일) 12시부터 스프레인 레이크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100이며 신청은 본당 골프회장 한치남(에드워드) 형제님이나 총무 방문덕(막시모)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 (9) 본당 활동단체 휴가

8월한달 은 단체모임이 없습니다.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셔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 이번달(8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다음달(9월)은 중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960.00    감사헌금 : \$ 100.00 (컴퓨터반)

교육헌금 : \$ 2,408.00    교 무 금 : \$ 4,140.00

윤기운(7-8) 이상자(2-8) 황인서(7-9) 김신자(8)    현영애(7-10)

문민영(6-8) 이상식(7)    손경섭(7-8) 양경식(5-6) 김동현(7-8)

김관희(8) 조부자(7-8) 신희원(8)    황 숙(5-6) 이준섭(완남)

박세복(3) 정남연(완남) 정태영(완남) 박효순(7-8) 박은영(7-8)

김영애(3-8) 김일규(7-8)

Stewardship Appeal : \$140.00    누계 : \$ 8,055.00

황인서    양경식    윤인순

####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몇 년 전 나의 남편은 혼자서 골프를 치러 나갔더니 그 골프장에서 혼자서 나온 또 한사람과 같이 치라고 짝을 지어주었다. 골프를 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보니 그 분은 한국사람이었다. 그 분은 사업관계로 종종 뉴욕에 오는데 올 때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골프를 친다고. 그렇게 처음 만나서 같이 골프를 치고는 그후로 그 분은 뉴욕에 오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골프를 치곤 했다. 그러면서 그 분은 남편에게 한국에 오면 자기가 좋은데 구경시켜준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나올 것을 권하곤 했다. 그 분의 말에 남편은 한국엘 나갔고 둘이서는 한국에서 좋다는데 다 다녔고, 동남아 여행까지 함께 했다. 남편 역시 겨울이면 그분을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둘이서 홀로리다로, 텍사스로 골프를 치러갔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 분이 그만 위암에 걸려서 한 3년 고생을 하다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하기전날 그 분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가 통화를 하고 싶어하신다고. 남편이 전화를 받으니 그 분은 있는 힘을 다 해 “저 팬찮아요” 하는 말만 겨우 했다. 그리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가 딸에게서 왔다. 나는 남편과 그 분이 우연히 골프치러 갔다가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 친한 친구처럼 몇 년동안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도 서로 가리는 것 없이 마음을 터놓고 상대를 대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지난 주말에 우리 부부와 또 다른 두 부부, 세 커플은 몇년전 성지 순례 때 만난 한 부부의 초청으로 업스테이트에 사는 그 분의 집에 가서 2박 3일 놀다 왔다. 그 분들은 우리 일행을 마치 오랜만에 자기 집을 방문한 형제들을 대하듯이 우리 일행을 잘 대접하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었다. 그 분들의 대접이 고마운 것을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좋은 분들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흐뭇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자주 만나면서도 서로 친근감을 갖지못하는 사이도 있다. 옆에서 보면 아주 친한 사이 같이 보일지라도...이런 경우는 마음을 닫고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지내기 때문이 아닐 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에서는 지나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하물며 함께 여행을 하고, 골프를 쳤으면 인연중에서도 인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서로 웃기를 스치며 살아도 인연을 맺지못하는 아주 낯설은 사람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무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상대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먼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사귀어온 허물없는 친구 같은,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 풍은